

월요광장

기분을 나르는 택시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새 차인데 조심해야지!”
택시 트렁크 안으로 짐을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다가 온 택시운전사의 격양된 목소리에 흠칫 놀랐다. 열린 트렁크 안으로 나를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넣으려 했기에 억울하기까지 했다. 출근 시간이라 터미널 승강장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도 없어 일단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지만 가는 내내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공항에 도착해 장거리 구간 택시를 탔을 때에도 현금 지불을 요구한 택시 운전사의 불친절함에 못마땅하던 참이었다.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와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 일본 출장길로 매우 이른 새벽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버스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갔다. 비싸기까진 소문난 일본의 택시비가 내심 부담스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 참을 기다린 끝에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섰다.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나온 택시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했다. 참나 그의 황송한 인사에 자연스레 내 고개도 따라 숙여졌다.

들어는 봤지만 일본의 택시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차분하게 손님을 맞으며 조심스럽게 짐을 넣어주는 태도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어두운 대도시의 야경과 대비되는 조용하고 편안한 서비스는 이제 막 외국에 도착한 여행자의 불안감과 여독을 씻어주는 듯 했다. 당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몇 차례의 택시 탑승도 이와 비슷했다.
국내에서는 홀로 또는 아이와 여행길에 오를 때면 택시 탑승을 마리부터 걱정해야 할 때가 많다. 싫은 음악을 들어야 한다거나 간혹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운전사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서있는 택시로 다가갈 때면 오늘은 행여나 욕을 한다거나 질투하길 좋아하는 난폭한 운전사를 만나지 않길 마음 속으로 바란 적이 꽤 있다. 더욱이 트렁크에 실어야 할 짐이 무겁거나 혹은 많을 때에는 크게 긴장을 해야 했다.
물론 친절과 호의가 넘치는 택시운전사도 매우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껏 택시를 이용하며 느꼈던 피로감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창문을 좀 닫아 달라거나 음악소리를 좀 줄여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부러 눈을 감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일도 제법 있었다. 어디서고 편안한 택시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택시는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 이상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문화를 나르는 택시들이 있다. 몇 해전 미국의 CNN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가장 멋진

택시들을 찾아 소개한 바 있다. 멕시코시티의 폭스바겐 비틀을 이용한 깜찍한 녹색 택시, 홍콩 여행의 기념품으로도 꼽히는 빨간 택시, 뉴욕 도시의 상징인 옐로우 캡과 고풍스럽고 중후한 매력을 자랑하는 런던의 블랙 캡에 이르기까지 각 도시 별 다양한 택시들을 볼 수 있었다. 역사와 전통이 이어진 택시들이야말로 그 도시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아이콘 중 하나라는 데에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다.
이 같은 오래된 차종으로 이루어진 택시들이 도시역사를 담은 문화의 상징이 되듯이 일본의 MK택시처럼 훌륭한 서비스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적 서비스 수준을 대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은 택시도 있다. 우리에게도 쾌적한 차량 환경을 유지하며 기분 좋은 그리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택시운전사들도 많다. 택시 운행에 대한 애로 사항과 택시 서비스 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한국의 택시업계의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승객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운전사들을 만나게 되면 더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택시가 운행에 대한 구조적 위기를 겪으며 운전사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늘 일방적으로 과도한 친절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승객이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의 경험에서 벗어나고 쾌적하고 편안한 기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사의 근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운전사와 승객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수필의 향기

질주의 기억



김향남
수필가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전화 끊고 빨리 시동을 걸어, 시동일!”
수하가 저편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선뜻 대답은 못했으나 마음은 벌써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가방을 챙겨 들었다. 순식간에 반복된 일이었다. 하지만 공연히 허전해 있는 나에게 왜 안 오느냐 빨리 시동을 걸어라, 냐다 후리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랴. 전화 너머 들려오는 말들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땀지 모르게 들뜬 분위기도 나를 부추겼다. 집었던 날개까지 다시 펴막겨졌다. 이렇게 몽고적 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촉대로 곧장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목적지까지는 무려 3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데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돌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쳐 달렸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어서는 더욱 속도를 냈다. 질주 본능! 내 안의 숨은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억의 경쟁자들을 뚫고 전력 질주 끝에 얻어낸 목숨이 아니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몸 어딘가에는 깊이 각인된 게 분명했다. 나는 바람처럼 쉼정 달렸다. 이어밤의 질

주 끝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중의 절 하나와 아직 답소 중일 내 사랑하는 벗들이 등불 밝혀 마중해줄 것이다.
길은 적막하고 황량했다. 소리 없는 강물 갈기도 하고 혹은 썩몰래는 뱀 갈기도 했다. 길은 외톨기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새끼 치듯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고 나뉘면서 끝없이 이어졌다. 길은 어디로든 뻗어 나갔다. 산이건 들이건 가리지 않았다. 도시건 시골이건 못 가는 곳도 없었다. 길은 어디서든 막힘이 없으며 누구라도 유혹할 수 있었다. 때론 구부러지고 때론 좁아지면서 살살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희부윽한 안개 속에 그마저 감춰버리기도 했다. 길은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너나없이 길을 찾아 떠났다. 때때로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없는 길도 만들어 성공신화를 쓰기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밥벌이를 못한 채 백수로 지내던 때였다. 시간은 왜 그렇게 느리게만 가는지, 불안과 우울과 조급증에 몸살을 앓고 했다. 하루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거두절미하고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었다. 친구를 졸라 공사장 빈터로 갔다. 그곳에서 첫 교습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웬걸. 자세를 잡고 시동 거는 법도 배우고 어렵사리 막 움직여보려는 참나, 그만 바닥에 곤두박이로 말았다. 출발도 하기 전 이마 위쪽을 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으니, 그 무모했던 도전은 상처만 남긴 채 허망하게 끝나 버렸다. 세상이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덤으로 남기고서. 자전거도 잘 못 타는 주제에 감히 오토바이라니. 그 역시 함부로 낚박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도!

그 후 다시는 어떤 것도 타지 못할 줄 알았다. 뒷통 얻어터지고선 자신감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리 단단하기만 한가? 갈치처럼 우왕좌왕 헤매기 일쑤지. 그런 중에 딱 하니 자동차가 나타났다. 사방이 휘휘 터진 ‘바퀴 돌 달린 것’ 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도 있는 데다 ‘나만의 공간’ 같은 은근함도 갖추었거니와 거부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내 두 다리는 가까운 주변이나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팔방 넓게 뚫린 몇 차선 대로, 저 먼 데까지도 무제한 확장되는 비약을 이루었다.
나는 썩몰래는 길의 꼬리를 따라 휘휘 달렸다.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고 오직 달렸다. 내가 차 안에 있다는 것도, 운전 중이라는 사실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만 뿌듯하게 차오를 뿐. 앞에는 ‘자유의 길’ 같은 것이 환상처럼 펼쳐졌다. 목적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좀 더 멀어도 좋고 아주 천천히 당도해도 좋을 듯 싶었다.
길은 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의 질주를 받아 주었다. 나는 동굴인 듯 허공인 듯 무한히 열린 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렸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같이’ 어느 고찰 향그러운 가슴들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자전거 탄 청년 몇이 내 옆을 스쳐간다. 펄구고 간바람 냄새가 ‘훅’ 하니 끼쳐온다. 풀속에 든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른다. 저 오래된 날들도 문득 눈앞엔 듯 다가와 선다. 좌충우돌 울릉불통, 열망도 절망도 방방했던 날들... 그때를 청춘이라 불러도 좋을까. 가을 오후 한적한 강변길. 멀어지던 자전거 뒤로 저릿한 기억 몇 날 바퀴처럼 굴러 본다.

기 고

어린 천사들에게 사랑을



강춘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원장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때 순간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귀한 인연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다. 이 곳에 입소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이들이 많다. 늘 함께여서 머리가 아닌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마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란 존재인 듯 싶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는 참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 그런 존재가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도 있다. 아이와 엄마라는 존재로 사랑이란 단어를 알게 했고, 가슴 따뜻한 정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아무런 조건도, 편견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인연들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모두가 이모가 되고 때론 엄마, 아빠가 돼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족의 빈 자리를

채워가며 가족이란 이름의 인연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가 마냥 웃으며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들의 희생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당장은 속 깊은 사랑을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가슴 속에 사랑이 많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해 또 다른 누군가의 곁에서 힘을 실어 주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영아일시보호소를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나눠주는 이들도 많다. 2008년부터 시작된 광주한의사회와의 인연이 대표적이다. 불철주야 24시간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염려해 봉사물 시작한 한의사 선생님들은 바쁜 진료 일중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한결음에 달려와 줘 그 힘든 코로나 시기도 견뎌낼 수 있었다.
15년간 계속된 광주시의사회 나눔봉사단 원장님들의 사랑 가득한 진료 덕에 영아들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등이 호전됐고 면역기능 역시 많이 높아져 약 약 투약 일수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느라 자신들의 몸이 상하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며 열심히 일만 했던 선생님들의 피로와 관절통증, 허리디스크 등도 진료를 통해 많이 감소했다.
변호사 천사 이모와의 인연은 엄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연에서 시작됐다. 아이의 엄마 역시 출생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홀로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법 앞에서는 모든 게 능력 밖의 일이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친모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변호사님을 만났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과정을 흔쾌히,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진행시켜 주었고 서울과 광주라는 먼 거리에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에게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누군가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아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준 변호사님 덕에 조만간 아이에게 주민번호가 생기게 된다. 어른들의 욕심과 무책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심으로 축하해 준 변호사님을 우리 날개 없는 천사 변호사님이라 칭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돌보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이웃,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 영아일시보호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이들의 사랑의 힘으로 행복할 하루하루를 이어가길 바란다.

社說

내년 국비 확보 마지막 기회, 총력 기울여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누락된 현안 사업 반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부처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을 살리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 심의 의결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법정 시한내 예산을 살리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여야의 대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시작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야당 주도로 증액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연루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강 대강 대치 심화로 법정 심사 기한내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은 광주의 경우 초거대 인공지능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조성 사업(140억 원)과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관 건립 유치 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늘리고 아예 누락된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부지 매입비 등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국비 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결집해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대 공포 확산, 선제적 적극 방역이 답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도 빈대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빈대막’ (빈대+팬데믹)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해외나 타 지역 택배를 통해 빈대가 전파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빈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 인터넷 상에 떠돌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빈대 퇴치에 있어 선제 대응과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빈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전남에서는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 어려운 빈대의 특성상 지자체의 적극적인 선제 방역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일까지 정부 합동대책본부가 파악한 빈대 의심 건수는 모두 30여건이다. 문제는 서울, 인천, 대구의 숙박업소·대학 기숙사·KTX 등 빈대 발견이 의심되는 곳이 바로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공간이라는 점이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현장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이 기간 동안 광주시도 숙박시설·점점 방 등 934곳, 버스·전동차 1022대를 대상으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빈대 발생 신고 및 안내 창구를 110(국민콜) 및 자치구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각 보건소가 빈대 발생 예방·홍보·상담 작용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빈대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방제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無等鼓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 80.3세보다 3.3세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을 분석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으며 향후 10여 년 후에는 선진국 중에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장수를 축하하는 생일잔치인 수연(壽宴)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목숨 ‘수(壽)’에 잔치 ‘연(宴)’을 뜻하는 수연(壽宴)은 대개 환갑잔치를 말한다. 또한 환갑 이듬해에 세는 진갑(進甲),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8세의 미수(米壽) 등도 수연에 해당한다. 1950년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50세였을 당시 60세 회갑(回甲)은 가장 크고 의미있는 잔치였다.
얼마 전 시대의 어른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산증인 윤공희 대주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백수연(白壽宴)’이 열렸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주관한 행사는 민

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윤대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가톨릭 생존 주교 중 최고령인 윤 대주교는 일제 강점기, 6·25전쟁, 5·18항쟁 등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오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했다.
1924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윤대주교는 올해 만 나이로 99세다. 보통 백수(白壽)라 하면 100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99세다. 100은 일백 ‘백(百)’인데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百壽宴’으로 쓰지 않고 ‘白壽宴’으로 표기된다. ‘百(백)’에서 一(일)을 뺀 ‘百(백)’을 써서 99세를 뜻하는 ‘白壽(백수)’가 되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백수연’을 기념하는 잔치도 예전 회갑잔치만큼이나 보편화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다. 윤대주교의 백수연은 물리적인 고령을 넘어 시대의 증인 내지는 존경할 만한 어른의 표상을 가졌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枚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국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